

# Seminis®

양배추

병충해 정보

 **흥농씨앗**  **중앙씨앗**

<http://www.seminiskorea.co.kr>

양배추 << 부패병

발생원인	월동재배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며 봄재배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결구엽온(結球葉溫)이 -5도 이하가 되면 한해에 의해 조직이 고사하고 여기에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생한다.
병징	증상은 처음에는 결구부의 위부터 2~3엽이 흑갈색으로 변색되면서 부패하여 아랫잎이 황갈색화하여 시든다.
방제대책	한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추운 해에는 피복을 해야 하며 포장이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아그렙토마이신류를 결구중기에 살포하여 주는 것이 본병 발생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양배추 << 뿌리썩음병(근부병)

발생원인	근후병이라고도 하는 데 여름철 및 가을철 재배시 비가 자주 올 때 발생이 심하다. 품종적으로는 원형계에서 많이 발생한다.
병징	증상은 처음에는 어린 줄기에 회백색 병반이 형성되고 점차 뿌리쪽으로 퍼져 원뿌리의 목 질부만이 담갈색의 섬유상으로 남게 되어 결국에는 시들어 고사하고 만다.
방제대책	저습지에서 발생이 많으므로 배수에 특히 유의하고 일단 발병된 주는 속히 제거한다.

양배추 << 연부병



발생원인	고온다습 하에서 발생이 심하며 태풍 및 장마 후 심하게 발생하는데 발병 적온은 30~33도이다.
병징	구의 측면이나 상면에 발생하는 데 처음에는 수침상으로 되다가 후에는 오백색(汚白色)으로 물렁물렁하게 썩어 악취를 심하게 풍기는 병이다.
방제대책	질소과다, 배수불량 등에 의해서 발병이 조장되므로 배수에 유의한다. 동수화제 500배액이나 마이신류를 반드시 비온 후에 살포하고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한다.

양배추 << 균핵병



<b>발생원인</b>	질소과다, 배수불량 등에 의해서 발병이 조장되므로 배수에 유의한다. 동수화제 500배액이나 마이신류를 반드시 비 온 후에 살포하고 병든 포기는 일찍 제거한다.
<b>병징</b>	처음에는 하엽의 엽병기부 주변 이 수침상으로 되고 병이 진행되면서 구 밑부분에 백색 곰팡이가 생기면서 썩는다. 연부병과 달리 악취는 없다.
<b>방제대책</b>	비나 눈이 많은 해의 여름작형과 월동작형에서 발생이 심하므로 결구 개시기에 로브랄, 스미렉스 등을 살포해 예방한다.

양배추 << 흑부병



<b>발생원인</b>	5월과 9~10월경 기온이 낮고 비가 많이 온 후에 발생이 심한 병이다. 발아 직후의 어린 묘에 발생하면 떡잎부터 흑변하기 시작하여 결국 고사 한다.
<b>병징</b>	본포에서는 주로 하엽부터 발생, 엽주변의 엽맥을 중심으로 외측으로 엷은 V자형 황색 병반을 만든다. 피해가 심한 경우 세균이 줄기까지 침입, 구내부를 흑변시키면서 전 포장에 발생한다.
<b>방제대책</b>	비가 여러 날 온 후에는 반드시 동수화제, 보르도액을 살포하며 해충에 의해 균이 침입하기도 하므로 해충의 구제에 힘쓴다. 병원균은 포장내에서 오랜 기간 서식하므로 발병포장은 윤작을 하도록 하며 병든 잎이 포장에 남아있지 않도록 따로 모아 태운다.

양배추 << 줌나방

<b>발생원인</b>	길이가 극히 적고 가는 충으로 한해 수회 발생한다.
<b>병징</b>	엽의 뒷면에 기생 하여 표피만을 남겨 놓고 식해하며 다발시에는 생육이 늦어지고 특히 어린 묘 시기에는 양배추의 성장점을 먹어 심지현상(芯止現象)을 유발시킨다.

<b>방제대책</b>	슈리사이드 및 노몰트, 란네이트 등을 유묘기부터 살포하여 초기에 철저히 구제하여야 한다. 줌나방의 경우 육묘초기에 묘상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는 전 포장에서 줌나방을 구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	---

**양배추 << 야도충**

<b>발생원인</b>	5~6, 9~10월에 주로 발생한다. 먹는 양이 많아 심하면 잎이 없어지고 축만 남아 생육이 억제된다.
<b>병징</b>	결구후기에 발생하면 구내부를 가식하여 온 통 구멍투성이가 되어 상품성이 없게 된다. 특히 노숙유충(老熟幼蟲)은 약제 저항성이 강하므로 일찍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b>방제대책</b>	사이아녹스, DDVP, 다이아지논등을 정식 초기에 살포해 준다. 발생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외엽이 가해한 흔적이 있는 식물체 밑의 흙을 가볍게 파보면 야도충이 있으므로 손으로 잡아 구제하도록 한다.

**양배추 << 배추흰나비**

<b>발생원인</b>	청벌레라고도 불리우며 봄 가을에 주로 발생하여 외엽을 식해한다.
<b>병징</b>	
<b>방제대책</b>	한해 5~6회 정도 발생하는데 DDVP등 일반 살충제로 비교적 쉽게 구제된다.

Seminis®